

## 전기·전자제품 EU의 환경규제 대응은 이렇게 !

- 산자부, RoHS 대응 방법이 수록된 정보집 발행 보급 -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과 협력사들은 그간의 노력으로 RoHS 규제지침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현재 대부분의 제품은 RoHS 규제기준을 준수 한다고 선언하고 수출, 판매하고 있다.

그 예로 PCB(인쇄회로기판)등에 납 성분이 없는 주석계 무연솔더가 사용되고, 6가 크롬은 3가 크롬으로 대체하였으며, 부식성 방지를 위한 카드뮴은 대체 코팅제를 사용하는 등 RoHS 준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수출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그간 RoHS 지침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험방법을 표준화하고 수차례의 산업체 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이미 대기업 전자업체들은 2005년 가을부터 자사브랜드 제품에 자발적으로 RoHS 준수 표시를 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체들은 중금속 등이 없는 대체소재 사용으로 인한 원가부담, 기술정보 및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RoHS 대응에 많은 애로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RoHS란 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과 브롬계난연제(PBB, PBDE)가 함유된 전기·전자 제품은 금년 7월 1일부터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환경규제 조치의 하나다.

연간 1,000억달러(대 EU 200억달러)의 전자제품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그 동안 철저한 RoHS 준비로 10% 정도의 수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관련업계 및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에서 밝히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RoHS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대·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한국전자산업전” 기간 중에 “한국종합전시장(KINTEX) 그랜드볼룸”에서 10월 20일(금) 국내산업 현장전문가들을 초청하여 “RoHS 대응방법”에 대한 전략적 점검 차원에서 RoHS 대응 국내·외 동향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체에서 필요한 최신 RoHS 지침서, WEEE 지침서, 중국 RoHS(안), 일본 J-Moss, 한국의 자원순환법과 실제대응사례, 표준화된 6대 유해물질 분석방법, EU의 단속가이드가 소개되는 등 실질적인 RoHS 대응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들이 RoHS 대응정보가 부족하여 납기일을 못 맞추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oHS :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 지침)

J-Moss : The marking for presence of the specific chemical(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표시)

[ 문의 : 산업자원부 화학세라믹표준팀 02-509-7298 ]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전력수요 2020년까지 연평균 2.5% 증가(3,536→4,927억kWh) -
- 발전설비 규모 : 6,400만kW('05) → 8,815만kW('20) -
- 발전설비 건설에 총 32조원(2006~2020년) 투자 전망 -

- 산업자원부는 9월 27일 오후, 2020년까지의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전력공급 계획을 담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공청회를 가졌음
- 동 계획(안)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2010년까지 연평균 4.6%씩 다소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 2010년 이후에는 2020년까지 연평균 1.4% 수준으로 증가하는 전력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도 전력수요의 증가와 함께 연평균 1.8%씩 증가하여 20년에는 7,181만kW('06년 5,899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최대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설비도 지속 확충하여 2020년에는 총 8,815만kW('06년 6,400만kW) 발전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임

〈 전력수급 전망 〉

	'06(실적)	'10	'15	'20
전력수요량(백만kWh)	353,086	416,623(4.6%)	456,443(1.8%)	478,555(1.0%)
최대수요(만kW)	5,899	6,461(3.4%)	6,947(1.5%)	7,181(0.7%)
발전설비 실효용량(만kW)	6,370	7,287	8,509	8,815
(실효) 예비율(%)	8.0	12.8	22.5	22.8

\* 발전설비용량 및 예비율은 실효용량 및 실효예비율 기준

\* ( )내는 연평균 최대전력수요 증가율

- 발전원별로는 LNG 설비 1,124만kW(18기), 석탄화력 998만kW(15기), 원전설비 960만kW(8기) 규모가 추가 건설될 전망이며,
- 석유설비는 26만kW(제주도), 수력은 246만kW(8기), 신재생에너지 등은 419만kW 규모가 2006~2020년 기간 동안 건설될 계획임
- 이러한 발전설비 건설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2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분석하였음('06년 1월 불변가 기준)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 '04년 수립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계획기간 : '04 ~ '17년) 수립 이후 최근의 높은 전력수요 추세를 반영하여 전력수요를 재전망하고,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음
  - 특히, 이번 3차 계획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도기라는 현 전력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전력수요에 따른 적정 발전설비규모와 적정 전원MIX를 유도하였다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또한, 그동안 다소 취약했던 수도권과 제주권의 수급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단위와 동일한 공급신뢰도를 기준으로 지역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내 설비확충 등을 유도하였음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탄소배출량 감축을 고려하여 전원구성 계획을 수립하였음
- 금번 제3차 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 조사(2회)와 75명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6개 분야별 소위원회의 실무작업(총 21회 회의 개최)을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였음
  - \* 6개 실무소위 : 수요예측, 수요관리, 발전설비, 계통설비, 신재생, 총괄
- 또한,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실무협의(9회)를 통해 계획수립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은 전력 수요예측치와 석탄, LNG, 원전 등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력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음
  - 또한, 국제 에너지 확보경쟁의 심화, 민간 발전사업자의 확대, 분산형전원의 확대로 전력 등 에너지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어, 전력수급계획과 같은 중장기 에너지 계획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정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련기관이 미래 에너지환경 전망과 분석 능력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경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임

[ 문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02-2110-5474 ]